

新羅玉笛 考證

南在澈*

目次

1. 緒言
2. 萬波息笛과 玉笛의 관계
3. 玉笛의 實狀과 전송과정
4. 結言

1. 緒言

‘玉笛’은 韓中을 불문하고 漢詩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詩語이다. 일반적으로는 ‘피리[笛]’의 美稱으로 쓰인다. 예컨대 唐 李白(701~762)의 詩 「春夜洛城聞笛」에서 “누구네 집 ‘玉笛’이 가만 소릴 날리는가? 봄바람에 흩어들어 낙양성에 가득하네(誰家玉笛暗飛聲, 散入春風滿洛城)”라고 하였는바, 여기에서의 ‘玉笛’은 ‘玉’과 무관하다. 그저 ‘笛’을 미칭하여 쓴 것이다. ‘笛’은 원래 羌中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羌笛’ 혹은 ‘胡笛’으로 불리는 경우도 많다.¹⁾

이는 물론 ‘笛’이라는 글자의 部首가 竹으로 만든 피리를 말하는 것이다. 宋 陳旸의 『樂書』 ‘樂圖論’에도 ‘羌笛(胡笛)’은 ‘胡部’의 ‘八音’ 가운데 하나인 ‘竹之屬’에 소개되어 있다. 옛 중국의 한시에서뿐 만이 아니라 한국 한시에서도 ‘玉笛’이란 시어는 무수히 등장한다. 그 대부분은 ‘竹之屬’ 즉 대나무 피리를 미칭한 것이다.

그러나 ‘玉笛’이 대나무 피리의 미칭으로만 쓰인 것은 아니다. 『樂書』 ‘樂圖論’의 ‘俗部’ ‘八音’ 가운데 ‘石之屬’에 ‘玉笛’이 소개되어 있다. 이는 실제 寶石의 일종인 ‘玉’을 재료로 하여 제작한 피리로서, 특히 唐 玄宗이 불었다는 ‘玉笛’이 유명하다.²⁾

중국에서 만들어진 ‘玉笛’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경우도 있다. 梧溪 李屹(1568~1630)이 明 崇禎帝로부터 하사받은 ‘玉笛’이 그것이다. 橋山 李裕元(1814~1888)에 의하면, 송정제로부터 하사받은 이 ‘玉笛’은 그가 살던 당시까지도 淸州 白雲洞의 梧溪 옛집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색깔은 얼은 靑色으로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으며, 길이는 석 자 석 치였고 둘레는 4치였다. 몸체에 세 개의 마디와 열두 개의 구멍이 갖추어 있었다.³⁾

이와 같은 玉으로 만든 ‘玉笛’은 일반적인 의미의 대나무 피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시어로 자주 등장하는 것도 아니며, 간혹 등장하더라도 구체적인 故事와 연관되어 있는 경

*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胡仔 撰, 『漁隱叢話』 後集 권4, 李太白. “苕溪漁隱曰: 『樂府雜錄』云: 笛者, 羌樂也. 古曲有「折楊柳」, 「落梅花」. 故謫仙「春夜洛城聞笛」云: 「誰家玉笛暗飛聲, 散入春風滿洛城, 此夜曲中聞折柳, 何人不起故園情.’ 杜少陵「吹笛」詩: 「故園楊柳今搖落, 何得愁中曲盡生.’ 王之渙云: 「羌笛何須怨楊柳, 春風不度玉門關.’ 皆言「折柳曲」也.”

2) 陳旸 撰, 『樂書』 권136, 樂圖論, 俗部, 八音, 石之屬, ‘玉笛’. “『梁州記』, 咸寧中, 有盜, 竊發張駿冢, 得白玉笛. 唐天寶中, 明皇, 命紅桃, 歌貴妃涼州曲, 親御玉笛, 爲之倚曲, 則玉之爲樂器, 非特可爲笙簫, 亦可爲笛矣. 今士夫之家, 往往有之.”

3) 李裕元, 『林下筆記』 권26, 春明逸史, 「皇賜玉笛」 참조.

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玉으로 만든 ‘玉笛’ 가운데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것보다도 유명한 것이 있다. 新羅 때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는 ‘玉笛’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옛 한시 작품에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한다. 대표적인 경우를 들어본다.

누가 玉笛 비껴들고 가만 소릴 날리는가?	誰橫玉笛暗飛聲
갈바람에 흩어드니 온갖 감회 일어나네.	散入秋風百感生
‘사뇌조’는 드높아서 구름이 아득하고	詞腦調高雲渺渺
‘나후가’는 느릿느릿 달빛이 가득하네.	羅侯歌緩月盈盈
서리 깔린 포석정에 의관 모두 사라졌고	霜粘鮑石衣冠盡
낙엽 지는 계림에는 별빛만 밝았으니,	木落鷄林星斗明
단장곡을 부르고자 하였던 건 아니지만	不是欲吹腸斷曲
옛성의 맑은 밤에 다시 맘이 걸리누나.	故城清夜更關情

이는 梅月堂 金時習(1435 ~ 1493)이 慶州에서 달밤에 ‘玉笛’ 소리를 듣고 지은 것이다.⁴⁾ 김시습에게서와 같이 우리의 옛 한시에서 시어로 무수히 나오는 것이 이 ‘玉笛’이다. 신라의 古都인 慶州로 가는 사람을 傳送하는 시나 옛 신라를 懷古하는 시에서 특히 자주 등장한다. 그러한 까닭에 현대의 지식인 및 일반 대중에게도 신라의 ‘玉笛’은 그 존재와 유래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사실 옛 신라를 회고하는 한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鮑石亭’, ‘鷄林黃葉’ 등등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신라의 ‘玉笛’ 역시도 이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빈도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玉笛’은 신라 관련 遺跡 및 遺物을 소재로 하여 지은 한시들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의 하나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옛 문헌이나 한시 작품에서 일명 ‘新羅玉笛’을 어떠한 양상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식 典故로 굳건히 자리를 잡은 ‘玉笛’이란 시어의 의미를 정치하게 이해하는 초석을 놓고자 한다.

2. 萬波息笛과 玉笛의 관계

요즘 일반인들이 백과사전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EnCyber 두산백과사전’에서 ‘新羅玉笛’을 표제어로 하여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악기의 길이는 약 53.5 cm이고 지름은 약 3.3 cm이다. 누런 바탕에 검은점이 찍혀 있고,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다. 본래 이 옥적은 신라 神文王 때 만들어 月城 天尊庫에 감추어둔 것이라고 하는데, 1692년(숙종 18)에 경주 東京館에서 발견되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삼국유사』에 전해오는 萬波息笛

4) 金時習, 『梅月堂詩集』 권12, 「月夜聞玉笛[新羅舊物]」 * []로 묶은 ‘新羅舊物’은 원문에 細注로 되어 있다. 이하 본 논문에서 []로 표시한 부분은 모두 세주이다.

이 바로 이 옥적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한다.

사실 우리 선인들은 ‘萬波息笛’과 ‘玉笛’을 별개의 물건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둘을 동일한 물건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일부에서는 『삼국유사』에 전해오는 萬波息笛이 바로 이 옥적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한다”라고 한 위 사건의 내용이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본래 이 옥적은 신라 神文王 때 만들어 月城 天尊庫에 감추어둔 것”이라 한 내용은, 『三國遺事』의 기록을 통해 살펴봤을 때, ‘玉笛’에 대한 것이 아닌 ‘萬波息笛’에 대한 소개가 분명하다. ‘玉笛’과 ‘萬波息笛’에 대한 소개 내용이 뒤섞여 있는 셈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萬波息笛’과 관련된 사연은 雷川 金富軾(1075~1151)이 1145년(인종 23)경에 편찬한 『三國史記』, 승려 一然(1206~1289)이 1281년(충렬왕 7)에 편찬한 『三國遺事』, 容齋 李荇(1478~1534) 등이 1530년(중종 25)에 增補하여 완성한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 실려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간행 이후의 문헌들에 수록된 ‘萬波息笛’ 관련 사연들은 거의 대부분 위 세 문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위 세 문헌 가운데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神文王(?~692) 때에 東海 가운데 문득 하나의 小山이 나타났는데 형상이 거북머리 같았다고 한다. 그 산 위에 한 그루 대나무가 있었는데, 낮이면 나뉘어 둘이 되고 밤이면 합해져서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왕이 베어서 ‘笛’을 만들게 하고는 ‘萬波息’이라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부식은 이러한 사연을 소개는 하면서도 괴이하여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⁵⁾ ‘萬波息笛’을 하나의 傳說 속에 나오는 물건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130여년이 흘러 『三國遺事』의 기록에 이르게 되면, ‘萬波息笛’ 관련 사연은 『三國史記』의 그것에 더욱 神異한 요소들이 추가된다. 그러면서도 ‘萬波息笛’이라는 피리 자체의 존재는 나름대로 역사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東海 가운데에 있는 小山 위의 대나무로서 피리를 만들어 月城의 天尊庫에 보관하였는데,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퇴각하고 질병이 치유되며(兵退病愈)’, ‘가뭄에 비가오고 장마에 비가 개며(旱雨雨晴)’,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가라앉았다(風定波平)’고 하였다. 그래서 이름을 ‘萬波息笛’이라 하고는 國寶로 일컬었는데, 693년(효소왕 2)에 失禮郎이 生還한 奇異한 일로 인하여 다시 ‘萬萬波波息笛’이라고 다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⁶⁾

5) 金富軾, 『三國史記』 雜志 권1, 樂. “神文王時, 東海中, 忽有一小山, 形如龜頭. 其上有一竿竹, 晝分爲二, 夜合爲一. 王使斫之作笛, 名萬波息. 雖有此說, 怪不可信.”

6) 一然, 『三國遺事』 권2, 紀異 2. ‘萬波息笛’. “第三十一神文大王, 諱政明, 金氏, 開耀元年辛巳七月七日即位. 爲聖考文武大王, 創感恩寺於東海邊. [寺中記云, 文武王, 欲鎮倭兵, 故始創此寺, 未畢而崩, 爲海龍. 其子神文立, 開耀二年, 畢排金堂, 砌下東向開一穴, 乃龍之入寺旋繞之備, 蓋遺詔之藏骨處, 名大王岩, 寺名感恩寺. 後見龍現形處, 名利見臺.] 明年壬午五月朔, [一本云天授元年, 誤矣.] 海官波珍噴朴夙清奏曰: ‘東海中有小山, 浮來向感恩寺, 隨波往來.’ 王異之. 命日官金春質, [一作春日] 占之曰: ‘聖考今爲海龍, 鎮護三韓. 抑又金公庾信, 乃三十三天之一子, 今降爲大臣. 二聖同德, 欲出守城之寶. 若陛下幸海邊, 必得無價大寶.’ 王喜. 以其月七日, 駕幸利見臺, 望其山, 遣使審之, 山勢如龜頭. 上有一竿竹, 晝爲二, 夜合一. [一云. 山亦晝夜開合如竹.] 使來奏之, 王御感恩寺宿. 明日午時, 竹合爲一, 天地震動, 風雨晦暗, 七日, 至其月十六日, 風霧波平. 王泛海入其山, 有龍奉黑玉帶來獻, 迎接共坐, 問曰: ‘此山與竹, 或判或合, 如何.’ 龍曰: ‘比如一手拍之無聲, 二手拍則有聲, 此竹之爲物, 合之然後有聲. 聖王以聲理天下之瑞也. 王取此竹, 作笛吹之, 天下和平. 今王考爲海中大龍, 庾信復爲天神. 二聖同心, 出此無價大寶, 令我獻之.’ 王驚喜, 以五色錦彩金玉酬, 賽之. 勅使斫竹出海時, 山與龍忽隱不現. 王宿感恩寺, 十七日, 到祇林寺西溪邊, 留駕晝膳. 太子理恭[即孝昭大王.]守闕, 聞此事, 走馬來賀. 徐察奏曰: ‘此玉帶諸窠, 皆眞龍也.’ 王曰: ‘汝何知之.’ 太子曰: ‘摘一窠沈水示之, 乃摘左邊第二窠沈溪, 卽成龍上天, 其地成淵, 因號龍淵.’ 駕還, 以其竹作笛, 藏於月城天尊庫. 吹此笛, 則兵退病愈, 旱雨雨晴, 風定波平, 號萬波息笛, 稱爲國寶. 至孝昭大王代天授四年癸巳, 因失

실상 ‘萬波息笛’의 ‘萬波息’이란 개념은 『三國遺事』에서 기록한 내용 중에 그 피리를 불었을 때에 ‘風定波平’이라고 한 것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개념은 『三國遺事』가 편찬되는 1281년 이전에도 문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權臣 崔瑀(?~1249)가女童을 집에 모아伎樂을 가르쳐서 언젠가 高宗에게 나와 보이게 하니, 왕도 매우 좋아하여 밤새도록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그때 崔瑀의 門客 文閣學士 李需(?~?)가 「教坊小娥」란 시를 지어 崔瑀에게 바쳐 그와 왕에게 포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 시에 “옥생황은 ‘定風波’를 길이 부네(玉笙長弄定風波)”⁷⁾라고 한 구절이 나와 있다. 여기에서의 ‘定風波’란 시어는 『三國遺事』에서의 ‘風定波平’이란 개념과 다르지 않다.

물론 「教坊小娥」에서의 ‘玉笙’이 신문왕 때에 만들어졌다는 그 ‘萬波息笛’일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定風波’를 길이 분다는 말은 곧 ‘萬波息笛’으로 부르는 노래를 염두에 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최소한 이수의 입장에서는 教坊의 小娥가 연주하는 眼前的 ‘玉笙’이 전쟁의 풍파를 잠재우고 太平聖代를 알리는 상징적 악기로 알려져왔던 ‘萬波息笛’으로 바꾸어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미 이 당시에 ‘萬波息笛’은 하나의 전설적 악기로 인식되었을 터이며, 이는 조선 시대에 접어들면 더욱 분명해진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三國遺事』에 수록된 ‘萬波息笛’ 관련 기록을 축약하여 전하면서도, 그 마지막에 “지금은 없어졌다(今亡)”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⁸⁾ 문헌 기록을 통해서 보자면 ‘萬波息笛’은 최소한 16세기 중반 이전에는 이미 그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음이 共認된, 그야말로 완벽하게 전설 속에만 머무르는 악기였던 셈이다.

반면 신라의 ‘玉笛’은 그 실체가 뚜렷이 전하는 역사상의 악기로 인식되어 왔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신라의 古跡으로 ‘萬波息笛’을 먼저 소개한 후, 그 다음에 ‘玉笛’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길이는 ‘한 자 아홉 치’인데 그 소리가 맑고 밝다고 했다. 俗說에 東海의 龍이 바친 것이라고 하고, 대대로 보배로 전하여 왔다고 하였다. 이어 晚節堂 朴元亨(1411~1469)과 樛軒 李石亨(1415~1477)의 한시를 소개하였다. 이들은 이 ‘玉笛’이 분명 ‘絲’도 아닌 ‘石’도 아닌 ‘竹’도 아닌 ‘玉’을 재료로 하여 彫琢한 것이라고 하였다. 어느 때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듣기로 신라가 태평을 구가하던 어느 시점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다고 전하고 있다.⁹⁾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린 ‘萬波息笛’과 ‘玉笛’ 이야기는 국내의 많은 문인들에 의해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조선 전기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명으로 전해졌을 것으로 짐작되는¹⁰⁾ 『朝鮮志』라는 책에는 ‘慶尙道’의 ‘古跡’으로 ‘萬波息

禮郎生還之異，更封號曰萬萬波波息笛。詳見彼傳。”

7) 徐居正 編, 『東文選』 권18, 七言排律, 「教坊小娥」.

8) 李荇 等,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慶尙道, 慶州府, 古跡, ‘萬波息笛.’ “神文王時, 東海中有小山, 浮來向感恩寺, 隨波往來. 王異之, 泛海入其山, 上有一竿竹, 命作笛. 吹此笛, 則兵退病愈, 旱雨雨晴, 風定波平, 號萬波息笛. 歷代傳寶之. 至孝昭王, 加號萬萬波波息笛, 今亡.”

9) 李荇 等,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慶尙道, 慶州府, 古跡, ‘玉笛.’ “長尺有九寸, 其聲清亮. 俗云東海龍所獻, 歷代傳寶之. ○ 朴元亨詩: ‘新羅有國開往昔, 民風朴略無興作, 玉笛一物成何日, 非絲非石又非竹, 禮樂可堪回薄俗, 況復彫琢荆山玉, 當時草木猶被澤, 豈料鷄林今黃落, 瞻星臺古獸砲石, 笛聲遠播人人屋, 一朝萬事煙霞滅, 所寶非人惟在物, 論錢未滿一錢直, 置之度外隨完缺, 我來忽聞一聲曲, 把筆作歌詞華拙, 獨不見, 商王象筋雲埋沒, 牧野千載遐思發.’ ○ 李石亨詩: ‘鷄林往事聞夙昔, 借問玉笛何代作, 聞說新羅大平日, 大平風月屬絲竹, 竹聲猶嫌渭川俗, 命工斲得藍田玉, 磨礪細膩光潤澤, 巧鑿六孔星錯落, 和絲調曲諧金石, 憂憂清聲定場屋, 當時萬物皆煙滅, 至今存者唯此物, 無乃鬼物煩守直, 傳之未久完無缺, 我欲疑思歌一曲, 曲且不成詞亦拙, 君不見, 岐山石鼓久湮沒, 昌黎老韓歌獨發.’

10) ‘我康獻王’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明 陳耀文(1573~1619)이 編한 『天中記』에 『朝鮮志』를 인용한 기록이 보인다.

笛¹¹⁾과 ‘玉笛’¹²⁾을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과 거의 같게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玉笛’이 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明代의 陳耀文(1573~1619)이 編한 저명한 類書 『天中記』에도 역대의 각종 ‘笛’을 정리하면서 『朝鮮志』를 출전으로 밝히며 ‘萬波息笛’과 ‘玉笛’에 대해 각각 소개하고 있다.¹³⁾

중국에까지 알려져 유명해진 ‘萬波息笛’과 ‘玉笛’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조선에서는 당연히 더욱 널리 알려졌을 터이다. 이것들을 소재로 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가 창작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조선 중기의 문신 浮查 成汝信(1546~1632)의 「東都遺跡二十七首」 가운데 두 수를 차례로 소개해보기로 한다.¹⁴⁾

작은 산이 바다에 떠 어디에서 온 것인가?	小山浮海自何來
그 위에 琅玕 같은 피리 재료 있었도다.	上有琅玕一笛材
한 번 불자 파도 모두 스스로 멈췄으니	吹了萬波皆自息
태평성대 그 기운이 여기에서 잉태했지.	太平風氣此中胎

‘萬波息笛’을 주제로 쓴 작품이다. 승구에서의 ‘琅玕’은 硬玉의 한 가지인데, 東海에서 浮來하였다는 小山 위의 대나무를 미화하여 비유적으로 쓴 것이지, 결코 ‘萬波息笛’의 재료가 玉의 일종인 ‘琅玕’이라는 말이 아니다. 이 시의 본문 아래 소개되어 있는 주석에 의하면, 이 작품에서 읊고 있는 ‘笛’은 『三國遺事』와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묘사한 그대로의 사연을 지닌 ‘萬波息笛’이다.¹⁵⁾

온운한 남전옥을 그 누가 다듬었나.	誰琢藍田溫潤姿
일곱 구멍 뚫어놓아 피리 모습 기이하네.	裁成七孔笛形奇
신라의 옛물건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	羅家舊物今猶在
연주함에 천년고국 슬픔을 일으키네.	吹起千年故國悲

‘玉笛’을 주제로 쓴 작품이다. 玉을 다듬어 이 피리를 만들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거니와, 이 작품의 본문 아래 소개된 주석의 내용도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소개된 그것과 동일하다.¹⁶⁾

위에서 성여신의 두 편 시를 예로 들어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선 시대 문인들은 거의 대부분 ‘萬波息笛’과 ‘玉笛’을 별개의 물건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간혹 ‘萬波息笛’과 ‘玉笛’을 동일한 물건으로 인식한 경우도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예를 淸陰 金尙憲(1570~1652)의 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1) 『朝鮮志』 卷上, ‘萬波息笛’. “[新羅神文王時, 東海中有小山, 浮來隨波往來. 王異之, 泛海入其山, 上有一竿竹, 命作笛. 吹此笛, 則兵退病愈, 旱雨雨晴, 風定波平, 號萬波息笛. 歷代傳寶之. 至孝昭王, 加號萬萬波波息笛. 今亡.]”

12) 『朝鮮志』 卷上, ‘玉笛’. “[長尺有九寸. 其聲清亮. 俗云東海龍所獻, 歷代寶之. 傳至於今.]”

13) (明)陳耀文 撰, 『天中記』 권43, ‘笛’. “萬波息, 新羅神文王時, 東海中有小山, 浮來隨波往來. 王異之, 泛海入其山, 且有一竿竹, 命以作笛. 吹此笛, 則兵退病愈, 旱雨雨晴, 風定波平, 號萬息波笛. 歷代寶傳之. 至孝昭王, 加號萬萬波波息笛.[朝鮮志] 又有玉笛, 長尺有九寸, 其聲清亮. 云東海龍所獻.”

14) 成汝信, 『浮查先生文集』 권1.

15) “右萬波息笛 ○ 神文王時, 東海中有小山浮來, 隨波往來, 上有一竿竹. 王取以爲笛, 吹之, 則兵退病愈, 旱雨雨晴, 風定波平, 號萬波息笛.”

16) “右玉笛 ○ 長尺有九寸, 其聲清亮. 俗云東海龍所獻, 歷代傳寶之.”

옥적 불던 계림의 옛일 떠올려	玉笛鷄林事
뇌옹께서 오래전에 노래 불렀지.	潘翁舊有歌
어떤 이가 그 한 곡조 불어 대어서	何人吹一曲
북쪽 바다 이는 파도 잠재우려나. ¹⁷⁾	坐息北溟波

기구에서는 분명 ‘玉笛’ 云云하고 있다. 그러나 결구에서 이른바 “북쪽 바다 이는 파도 잠재우려나”라고 한 표현은 『三國遺事』에서 ‘萬波息笛’을 불었을 때 ‘風定波平’하였다는 기록과 동일한 맥락에서 쓰인 것이다. 다만 신라 때에는 東溟을 잠재우고자 했던 것이라면, 여기에서는 丙子胡亂을 일으킨 淸의 세력 즉 ‘北溟’을 잠재우기를 바라는 소망이 강렬하게 표현된 것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기구의 ‘玉笛’은 사실상 ‘萬波息笛’을 이야기 한 것이 된다.

사실 위 시는, 승구에서 ‘潘翁’ 운운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潘谿 俞好仁(1445~1494)의 「萬波息笛」 시를 염두에 두고 지어진 작품이다. 유호인이 「萬波息笛」 마지막 두 구절에서 “가령 아름다운 이름대로 ‘息萬波’ 했다마는, 아아! ‘笛’이여 너를 어이할거나?(縱使佳名息萬波, 吁嗟笛兮奈爾何)”¹⁸⁾라고 탄식했던 표현에서의 ‘笛’은 다름 아닌 ‘萬波息笛’이었는데, 김상헌은 이를 ‘玉笛’으로 수용한 것이다.

유호인은 『東國輿地勝覽』 편찬에 참여하였던 분이므로, ‘萬波息笛’과 ‘玉笛’을 별개의 물건으로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김상헌의 경우에는 두 물건을 뚜렷이 구별해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였는지, 당대 일각에 ‘萬波息笛’과 ‘玉笛’을 모호하게 구별하여 인식하던 관습 그대로 따르고 있다. 조선 시대에 ‘萬波息笛’과 ‘玉笛’ 두 물건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았던 모호한 인식은 野史의 전승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估畢齋 金宗直(1431~1492)의 다음 인용한 구절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	
이견대 아래에는 바다 물결 잔잔하니	利見臺下海無波
그 누가 神山 대를 베어왔던 것이던가?	何人斫却神山竹
野史는 맹랑하여 믿을 것이 못되거니	野史孟浪不足信
문득 이걸 만져보니 한 자 정도 玉이로세 ¹⁹⁾	忽此摩挲盈尺玉
.....	

17) 金尙憲, 『淸陰先生集』 권11, 「雪窩集」 二百八十九首, 「雜詠十首, 答曹侍御」 중 제4수.

18) 俞好仁, 『潘谿集』 권4, 七言古風, 「萬波息笛」. “辰韓之東大麓時, 溟風囊籥雲萬里, 蒼茫一髮翠芙蓉, 老蹇擎出淸冷宮, 上有琅玕何翯翯, 孤影顛月扶桑曉, 君王蚤闢黃金闕, 翠華搖搖駐海曲, 試斬靈根撼太沖, 電母鬱怒德天翁, 故來裁製十六孔, 瀏瀏宛似來儀鳳, 臨海殿前纔數聲, 祥風宇內妖氛淸, 大平煙月鶴林春, 鍾鳴鼎食義皇民, 五百年來化日長, 康衢白叟歌時康, 可伶來仍不嗣德, 錯恃靈符做盤石, 畢竟君臣入醉鄉, 鮑石亭前風雨忙, 千秋神器收不得, 金麓落日空蕭瑟, 縱使佳名息萬波, 吁嗟笛兮奈爾何.”

19) 金宗直, 『估畢齋集』 권2, 詩集, 「玉笛, 次李漢城[石亭]」. “辰韓疆宇方開拓, 朝廷禮樂稍制作, 利見臺下海無波, 何人斫却神山竹, 野史孟浪不足信, 忽此摩挲盈尺玉, 一捻聲聲徹寥廓, 曲中猶帶梅花落, 當時誰善不如肉, 應伴阿嬌貯金屋, 漂流千載偶然存, 世間但訝爲神物, 揭來失手欲變化, 緘際着骨何曾缺, 興亡壽夭豈可詰, 強推物理眞自拙, 伶人爲我莫更吹, 却恐四筵驚鶻發.” * 이 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玉笛’과 관련하여 소개된 樗軒 李石亨(1415~1477)의 시를 차운한 것이다.

이 구절을 포함한 김중직의 시는 ‘玉笛’을 주제로 읊은 것이다. 그런데 앞 두 구에서 ‘바다 물결 잔잔하니’라고 한 표현과 ‘神山竹’ 운운한 표현은 『三國遺事』에서 전하고 있는 바와 같은 ‘萬波息笛’과 관련된 내용이다. 김중직이 살던 시대에도 어떤 이들은 ‘玉笛’이라는 실체가 전하는 물건을 두고서 ‘萬波息笛’ 관련 설화를 연관 지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뒤 두 구에서 보듯 김중직은 ‘玉笛’과 ‘萬波息笛’을 연관시키는 이러한 이야기가 ‘野史’로 전하는 것이어서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했다. 자신이 직접 그 ‘玉笛’을 만져보니까 한 자 남짓한 크기의 ‘玉’이더라는 것이다. 물론 김중직의 견해로는 ‘萬波息笛’ 이야기 자체가 믿을 수 없는 野史로 인식되었던 것이거니와, 실제로 전하며 존재하고 있고 그가 직접 만져봤던 그 ‘玉笛’은 ‘바다 물결 잔잔하게’ 하였다는 ‘神山竹’을 소재로 하는 ‘萬波息笛’이 아니더라는 것이다.

김중직이 변증하고 있듯 ‘玉笛’은 ‘萬波息笛’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물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萬波息笛’과 ‘玉笛’을 모호하게 구별하여 인식하던 이들이 있었던 것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속설에 ‘玉笛’을 東海의 龍이 바친 것이라고 한 내용 때문일 터이다. 『三國遺事』에 의하면 죽어서 海龍이 된 文武王과 天神이 된 金庾信이 합심하여 龍을 시켜 東海 중의 한 섬에 대나무를 보냈고, 그 대나무를 재료로 하여 ‘萬波息笛’이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俗說을 통해서 ‘萬波息笛’ 이야기가 ‘玉笛’의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그 영향이 조선 시대의 몇몇 문인들의 작품 속에 그대로 수용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영향 때문에 요즘에도 ‘玉笛’과 ‘萬波息笛’을 뒤섞어 인식하는 경우가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3. 玉笛의 實狀과 傳承과정

우선 제작 시기, 구멍 개수 등과 관련된 ‘玉笛’의 實狀을 검토해보고, 그것이 조선 시대에 전승되는 과정에 있어 발생했던 몇가지 에피소드를 정리해보기로 하자.

‘玉笛’의 재료가 ‘玉’이며, 그 길이가 한 자 아홉 치라는 점은 이미 밝혔거니와, 그렇다면 ‘玉笛’은 언제 어디에서 제작된 것일까?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소개된 이석형의 시에서는 ‘新羅大平日’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하였고, 조선 시대의 대다수 문인들도 그렇게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선 후기의 대표적 考證學者인 秋史 金正喜(1786~1856)는 이 ‘玉笛’이 원래 伽倻에서 만들어져서 新羅로 전해졌을 것으로 추측하며, ‘金官玉笛’으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옳지 않느냐란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²⁰⁾

‘玉笛’의 구멍 수는 6개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7개로 기록되어 있기도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소개된 이석형의 시에서 ‘玉笛’의 구멍이 6개라고 밝히고 있고, 앞서 소개한 바 있는 성여신의 「東都遺跡」시에서는 이 ‘玉笛’의 구멍이 7개라고 하였다. 아마 어느 한쪽이 직접 이 ‘玉笛’을 목도하지 않아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이석형은 指孔 6개만을 세고 성여신은 지공 6개에 吹孔 1개를 더해서 계산하여 이런 차이가 나왔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여겨진다.²¹⁾ 분명한 것은 그 어디에도 七星孔이 뚫려 있었다

20) 金正喜, 『阮堂全集』 권3, 書牘, 「與權彝齋[敦仁]」 제32. “玉笛, 又一奇遺異緣. 聞是金海所出, 是金官古物, 又不止新羅也. 謚之以金官玉笛, 更佳刻之匣面, 未知如何.”

21) 참고로 앞서 소개한 유희인의 「萬波息笛」에서는 ‘萬波息笛’의 구멍 수를 16개로 소개하였는데, 그 근거가 무

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마도 新羅의 三竹에 속하는 小竽과 유사한 형태였던 것 같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소개된 이석형의 시에서는 이 ‘玉笛’이 전혀 훼손되지 않은 ‘完無缺’의 상태라고 하였는데, 조선 후기의 학자 玉蕤堂 韓致淵(1765~1814)의 언급에 따르면 壬辰倭亂을 겪으면서 다소 훼손이 되어 수리를 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에 따르자면, 이 ‘玉笛’은 조선 후기 당시까지 경주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南遊할 때에 직접 목도해보니, 그 생김새가 윗부분은 마르고 아랫부분은 생생한 형태의 천연적인 대나무 모습을 그대로 模寫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에 倭인들이 이 ‘玉笛’을 쳐서 부수었는지라 그 부서진 부분을 쇠를 이용하여 보완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원래의 淸亮하게 나던 소리가 변질되었다고 하였다.²²⁾ 橘山 李裕元(1814~1888)도 한치윤과 거의 같은 사연을 전하고 있다. 이유원의 「玉笛」시와 그 주석을 나란히 인용해 본다.

천연의 대 빛깔이 옥처럼 찬란한데	天然竹色玉璘珣
조령 넘어 소리 안 나, 東史의 진실됐네.	踰嶺聲暗東史眞
척촌도 차이 없게 쇠로 결점 보완하니	尺寸無差鐵補缺
어찌 알리, 신령함이 용에게서 비롯됨을.	那知靈異自龍神

笛의 길이는 한 자 아홉 치인데, 위는 마르고 아래는 생생하여 천연적인 대나무 빛깔이었다. 世傳에 鳥嶺을 넘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왜인이 부수어서 쇠로 훼손 부분을 보완하였다. 『朝鮮志』에는 동해의 용이 바친 것이라고 하였다.²³⁾

이상에서 보듯 임진왜란 때 왜인들이 ‘玉笛’을 쳐서 부수어버려 쇠로 훼손된 부분을 보완하여 수리하였다는 이야기는 조선 후기에 하나의 정설로 인정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俗說일 뿐이요 역사적 사실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음에 인용하는 이는 拙翁 洪聖民(1536~1594)의 시를 보면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일찍이 신라조의 제일가는 보배인데	曾是羅朝第一珍
치량한 풍월로서 몇 봄을 지냈던가?	淒涼風月幾回春
광대의 손아귀에 내맡겨짐 응당 싫어	應嫌質委伶人手
불속으로 날아들어 먼지 되길 원한 건가? ²⁴⁾	飛入紅焰願作塵

신라 때에는 국가의 제일가는 보배였는데, 亡國 이래로 광대들의 비루한 손길에 내맡겨

엇인지는 알 길이 없다. 혹 조선 시대에 ‘萬波息笛’으로 전하는 악기가 향간에 떠돌았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그 악기에 吹孔, 淸孔, 指孔, 七星孔을 모두 합해 구멍이 16개 뚫려 있었을 수도 있겠다. 星湖 李瀾(1681~1763)의 경우 「萬波息曲」을 읊은 시에서 ‘萬波息笛’에 七星孔이 參差하다고 하였다.(李瀾, 『星湖先生全集』 권7, 海東樂府, 「萬波息曲」. “笛無聲萬波興, 笛有聲萬波息, 七星孔兮參差, 遺響振兮老竹. ……”)

22) 韓致淵, 『海東釋史』 권22, 樂志, 樂制 樂器. “朝鮮國, 有玉笛. 長尺有九寸. 其聲淸亮. 云海東龍所獻.[朝鮮志] 案玉笛, 新羅時笛也. 今在慶州府. 世傳, 北踰鳥嶺, 則聲暗. 余南遊時見之, 長尺有九寸. 上枯下生, 天然竹色. 壬辰兵燹, 爲倭人所擊碎, 以鐵補缺. 自遭毀以後, 聲不淸亮云.”

23) 李裕元, 『林下筆記』 권38, 海東樂府, 「玉笛」. “(시 생략) 笛長尺有九寸. 上枯下生, 天然竹色. 世傳, 逾鳥嶺, 則聲暗. 壬辰爲倭人所碎, 以鐵補缺. 朝鮮誌, 海東龍所獻.”

24) 洪聖民, 『拙翁集』 권3, 「鷄林玉笛」 2수 중 제2수. “(시 생략) 笛於壬子年, 爲烈焰所傷, 幾至破壞. 故及之.”

저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고, 이러한 신세가 싫어서 ‘玉笛’ 스스로 거센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차라리 한줌 먼지가 되려 하였다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어 홍성민은 작품 아래의 주석에서 ‘玉笛’이 ‘壬子年’에 세찬 불길에 손상이 되어서 거의 파괴되는 지경에 이른 까닭에 이렇게 읊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치윤, 이유원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壬子年’이면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40년 전인 1552년에 해당된다. 혹 ‘壬子年’이 ‘壬辰年’의 誤記가 아닌가 억측을 할 수도 있으나, 홍성민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2년 후인 1594년 6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위 시는 그가 경상감사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시가 수록된 『拙翁集』을 살펴보면, 본 작품의 전후로 신라의 古蹟을 읊은 것들이 다수 실려 있기 때문이다. 홍성민은 1580년에 경상감사로 부임했고, 1590년에도 경상감사에 특별히 제수된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봤을 때, ‘玉笛’은 1552년에 화재에 의해 불에 타서 훼손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왜인에 의해 훼손된 것이라는 식으로 잘못 알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玉笛’의 관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누군가가 훼손의 책임을 왜인들에게 전가하였을 터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치윤과 이유원 모두 경주에 보관되어 있던 이 ‘玉笛’이 ‘鳥嶺’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다소 신이한 ‘世傳’에 근거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서 관심을 끈다. 이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존재했던 이야기이고,²⁵⁾ 조선 후기에 이르면 더욱 널리 유포됨과 아울러 이유원의 詩句에서 말한 바와 같이 ‘東史眞’으로 인정되던 사연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발생하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일단 경주에 있던 ‘玉笛’이 조령을 넘어가게 된 사연을 알아보고, 이어 조령을 넘어간 후에는 이 ‘玉笛’에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게 되었다는 속설의 진상을 파악해 보기로 하자.

신라 이후로 줄곧 경주에 보관되어 오던 ‘玉笛’이 조령을 넘어 서울로 옮겨지게 된 사건은 아마도 燕山君 때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朝鮮王朝實錄』을 보면, 연산군 10년(1504) 7월 28일자 기사에 “慶州의 玉笛을 本道로 하여금 올려 보내게 하라”고 한 연산군의 傳敎가 보인다.²⁶⁾ 이어 같은 해 8월 16일자 기사에 보면, 연산군이 승정원에 “玉笛을 어찌 경주에 두는가? 內庫로 옮겨 간직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전교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라의 옛 것이므로 옛 도읍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고로 옮긴들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라고 답하는 내용이 나온다.²⁷⁾ 당시 젊고 아름다운 妓生과 音律에 대해 유달리 관심을 쏟던 그로서는 신라의 천년 遺物인 ‘玉笛’에도 관심이 있었을 터이며, 이러한 이유로 경주의 ‘玉笛’을 徵收하여 경복궁의 내고로 옮겨 보관하려 시도했을 터이다. 그러나 경주의 ‘玉笛’을 경복궁의 내고로 옮기려 하였던 연산군의 시도는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대한 사연은 茶山 丁若鏞(1762~1836)의 「鷄林玉笛辨」²⁸⁾에 자세히

25) 앞서 언급한 『拙翁集』의 「鷄林玉笛」 2수 중 제1수에도 다음과 같이 그 사연이 나와 있다. “亡國當時玉未碎, 千年抱恨滯梨園, 渠猶可惜還堪笑, 楚主前頭不肯言.’ 笛度鳥嶺, 則無聲云, 故及之.”

26) 『朝鮮王朝實錄』, 燕山 54卷, 10年(1504, 甲子/弘治 17年) 7月 28日(丙辰) 4번째 기사. “傳曰: ‘慶州玉笛, 令本道, 上送.’”

27) 『朝鮮王朝實錄』, 燕山 55卷, 10年(1504, 甲子/弘治 17年) 8月 16日(癸酉) 4번째 기사. “傳于政院曰: ‘玉笛何以在慶州. 移藏於內庫何如.’ 承旨等啓: ‘新羅舊物, 故藏于舊都耳. 然移於內庫何妨.’”

28) 丁若鏞, 『與猶堂全書』 제1집, 詩文集 권12, 文集, 辨, 「鷄林玉笛辨」. “慶州, 有玉笛一, 新羅舊物也. 他人吹之, 不能聲, 唯慶之工得聲之. 然且有一工能之, 則他工不能聲, 其人死而後, 有代而聲之者出焉. 國朝, 嘗徵此笛, 與能聲此笛者, 在途吹弄, 其聲嘹亮. 至鳥嶺之北, 笛忽啞. 既至京, 縣之重賞而聲之, 聲竟不出. 令帶之還至鳥嶺之南而

나와 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문단을 나누고 순서를 조금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① 慶州에 玉笛이 하나 있는데 新羅의 舊物이다. 다른 사람이 불면 소리를 낼 수 없고, 오직 경주의 樂工만이 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또한 한 악공이 소리를 잘 내면 다른 악공은 소리를 낼 수 없어서, 그 사람이 죽은 뒤에야 그를 대신하여 소리를 낼 자가 나왔다.

우선 정약용은 경주의 ‘玉笛’은 오로지 한 樂工만이 연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 이야기 역시 ‘玉笛’이 조령을 넘으면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만큼 유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러한 俗說에 은연중 개입되어 있는 神異性에 대해 부정을 하며,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해석을 내놓는다.

③ 나는 이것을 거짓이라고 본다. 그 玉笛을 보니, 전체적인 생김새는 통통하지만 대롱구멍은 좁게 뚫려 있어서, 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소리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불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경주 사람은 어릴 적부터 익히어 늙도록 불어왔기 때문에 그 기예를 독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바야흐로 한 사람이 그 기예를 독차지하여 다른 여러 사람들이 구차히 익히지 않다가 그 기예를 가진 자가 끊어질 무렵에 이르러서야 그 기예를 계승했던 것이니, 그가 반드시 죽은 뒤에야 그 玉笛을 부는 자가 나온다는 것은 망령된 말이다.

‘玉笛’의 겉모양새는 통통해 보이지만 정작 대롱의 안쪽 지름은 얼마 되지 않아서, 즉 일반적인 大筚類 악기와 구조가 달라서 보통 연주자는 불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玉笛’의 연주 방법을 특정인에게만 폐쇄적으로 전수하여 계승시키다보니, 선임 연주능력 보유자가 죽은 뒤에야 그를 대신하는 새로운 연주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약용은 연산군이 경주의 ‘玉笛’을 경복궁의 내고로 옮기려 하였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 사연을 소개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② 國朝에서 일찍이 이 玉笛을 징수해서 이 玉笛을 잘 볼 수 있는 자에게 주어 길에서 연주하게 하였는데 그 소리가 크고도 밝았다. 그러나 조령 북쪽에 이르러서는 玉笛이 갑자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미 서울에 이르자, 많은 상금을 걸어 놓고 소리를 내게 하였으나, 소리가 끝내 나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조령 남쪽으로 가서 불게 하자, 그 소리가 전과 같이 나왔다. 그리하여 이것이 이른바 靈奇하여 힐난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정약용의 이 언급에 의하면, 연산군의 전교에 따라 실제로 경주에 보관 중이던 ‘玉笛’을 서울로 옮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경주에서는 악공이 이 ‘玉笛’을 잘 연주하다가 조령 북쪽에 이르러서는 연주하지 못하게 되었고, 서울에 이르러서는 많은 상금까지 걸고 이 ‘玉笛’을 연주할 수 있는 다른 악공을 찾았으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평소 이 ‘玉笛’을 대해보지 못했던 서울의 악공들이 이를 연주하지 못한 것은, 위의

吹之, 其聲依然. 茲所謂靈奇, 而不可詰者也. 余曰此詐也. 見其笛, 肉肥而管窄, 無異乎出聲之艱也. 出聲艱, 故他人猝然遇之, 不能聲. 慶之人, 童習老專, 而得擅其藝也. 方一人之擅藝也, 諸人不苟習也, 至其乏而承之, 其必死而後出者妄也. 若夫至北而啞, 尤其詐也. 橋渡淮爲枳, 鸚鵡不踰沔者, 彼其有動植之性. 隨地氣之冷煖, 而有所變異也, 若笛頑石也, 惡有是哉. 黠奴, 恐笛之不還, 而已之被留也, 爲之詐以神其說, 而人且靡然聽信, 不復究其理也. 大抵人莫不樂誕以自愚, 故爲之辯.”

인용문 ③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玉笛’ 자체의 물리적 구조가 연주하기에 워낙 까다로워서였을 터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玉笛’을 다시 조령 남쪽으로 가져가서 부니 원래대로 소리가 잘 났다는 데에 있다. 이는 이 ‘玉笛’을 서울로 가져갔을 때에 동행했던 악공의 속임수에 의한 것이지, 이 ‘玉笛’ 자체의 ‘靈奇’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정약용의 해석이다. 이는 다음 인용문에 자세하다.

④ 계다가 鳥嶺 북쪽에 이르자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거짓이다. 굴이 淮水를 건너가면 탕자가 되고 鸚鵡이 沔水를 넘어 오지 않는다는 말, 저것은 동식물의 성질에 있어서 地氣의 차고 따스함에 따라 변하여 달라지는 바가 있어서이겠지만, 玉笛은 딱딱한 돌덩이와 같은데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겠는가. 이것은 (경주의) ‘黠奴’가 옥적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자기 몸마져 억류당할까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그 말을 신기하게 만든 것인데, 사람들은 또한 무조건 듣고서 믿기만 하고 다시 그 이치를 연구해보지 않았다. 대저 사람들 중에는 허탄함을 좋아하여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이가 없으므로, 그들을 위하여 변증하는 것이다.

정약용의 이와 같은 변증을 통해 우리는 경주인들, 경주의 악공들이 신라의 천년 유물인 ‘玉笛’을 고스란히 자신의 고장에서 전승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신라의 ‘玉笛’은 아무에게나 접근을 허용하는 평범한 물건이 아닌 그야말로 대를 이어 폐쇄적으로 연주자를 정해 전승시켜야 할 귀중한 유산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연산군이 이 ‘玉笛’을 징수하려고 하였을 때 거짓으로 피를 내어가면서까지 조령을 넘어 가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靈異한 俗說을 만들어 낸 것이다. 정약용은 비록 그러한 악공들을 ‘黠奴’라고 하며 폄하하듯 하였지만, 이 ‘黠奴’들로 폄하된 ‘玉笛’ 전문 연주능력 보유자들의 노력에 의해 ‘玉笛’은 그 존재의 의미를 확고히 지키며 가치를 발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玉笛’과 관련된 다소 靈異한 사연들은 조선 후기의 수많은 문인들의 관심거리가 되었음은 물론이려니와, 朝廷의 國史를 논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도 언급이 될 정도의 그야말로 유명한 이야기로 발전하게 되었다.

上(영조)이 말하기를, “경들은 紅犀帶의 일을 들었는가? 太祖께서 계유년(1393)에 戶長에게 내리셨는데, 올해가 계유년이니 기이하다.”라고 하니, 元景夏(1698~1761)가 말하기를, “신은 듣지 못하였습시다만, 安東의 權太師의 사당에도 또한 犀帶가 있는데, 호장이 이것을 띠고 제사지낸다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한가?”라고 하니, 元景夏가 말하기를, “慶州의 玉笛도 또한 기이합니다. 鳥嶺을 넘으면 피리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²⁹⁾

이는 『朝鮮王朝實錄』의 영조 29년(1753) 조에 있는 기사이다. ‘紅犀帶’란 조선 왕조의 신령함과 정통성을 증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다.³⁰⁾ 그런데 조령을 넘으면 소리가

29) 『朝鮮王朝實錄』, 英祖 80卷, 29年(1753, 癸酉/乾隆 18年) 12月 8日(戊子) 1번째 기사. “上曰: ‘卿等聞紅犀帶事乎. 太祖, 賜戶長於癸酉年, 而今年癸酉, 奇矣.’ 景夏曰: ‘臣未之聞矣. 安東權太師廟, 亦有犀帶, 戶長帶此, 而行祭云矣.’ 上曰: ‘然乎.’ 景夏曰: ‘慶州玉籥, 亦奇矣. 躡鳥嶺, 則籥聲不出云矣.’”

30) 계유년인 영조 29년(1753)에 三陟府使 李峽이 府中에서 우연히 紅犀帶 하나를 얻었다. 전하는 말로 洪武 계유년 즉 태조 2년(1393)에 태조가 삼척은 穆祖의 外鄉이라 하여 그때의 戶長에게 특별히 犀帶를 내렸는데, 여섯 번째의 계유년이 돌아온 때에 다시 그것을 찾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영조는 삼척부에 명하여 호장 金尙矩로 하여금 서대를 가지고 오게 하여 특별히 召見하고 그를 參奉으로 제수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朝鮮王朝實錄』, 英祖 81卷, 30年(1754 甲戌/乾隆 19年) 1月 1日(辛亥) 1번째 기사 참조.

나지 않는 ‘玉笛’의 기이함이 ‘紅犀帶’와 같은 자리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780년 정조가 誠正閣에서 藥院提調를 召見하는 자리에서 승지 金尙集(1723~?)에게 경주의 古蹟에 대해 질문하니, 김상집이 경주의 ‘일곱 가지 괴이한 것’ 중의 첫 번째로 “玉笛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것인데 한 사람만이 잘 불었다”는 사연을 아뢰기도 한다.³¹⁾ 이처럼 ‘玉笛’은 연산군 이래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조령을 넘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오로지 한 사람만이 불 수 있는 신이한 속성을 지닌 하나의 전설적인 물건으로 점차 만들어져왔던 것이며, 혹 정약용과 같은 실증주의적 관점에 선 분들에 의해서는 그 허탄함을 변증해야 할 무시 못할 대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4. 結言

이상에서 우리는 옛 문헌 기록이나 한시 작품 속에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신라의 ‘玉笛’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을 고증함으로써, 우리식 典故로 굳건히 자리를 잡은 ‘玉笛’이란 시어의 의미를 정치하게 이해하는 초석을 놓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밝힌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보기로 한다.

‘萬波息笛’과 ‘玉笛’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물건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헌 기록을 통해 고증해보면 두 물건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물건임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물건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俗說을 통해서 ‘萬波息笛’ 이야기가 ‘玉笛’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래 ‘玉笛’은 ‘玉’을 재료로 천연적인 대나무 모습을 그대로 모사하여 만든 것인데, 길이는 한 자 아홉 치이다. 원래는 伽倻에서 만들어진 것이 新羅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큰 악기이다. 구멍 수는 문헌에 6개 혹은 7개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는데, 아마도 指孔 6개에 吹孔 1개가 뚫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玉笛’은 원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경주에 보관되어 오다가, 1552년에 화재로 인해 불에 타서 심하게 훼손되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록에는 임진왜란 때에 왜인들이 훼손하였다는 식으로 소개하여 하나의 정설로 굳어져버린 것으로 이해된다. 화재로 인해 훼손된 부분은 어느 시점에선가 쇠를 이용해 보완하여 원래의 모습대로 수리되었다고 한다.

속설에 ‘玉笛’은 오로지 한 사람만이 불 수 있고 원래의 연주자가 죽은 뒤에야 새로운 연주자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玉笛’의 물리적 구조가 소리를 내기에 워낙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玉笛’이 鳥嶺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다소 신이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연산군이 경주의 ‘玉笛’을 징수하여 서울로 옮겨 보관하게 하려 했던 사건과 연관하여, 경주의 악공들이 ‘玉笛’을 뺏기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며 하나의 속설로 굳어졌다고 여겨진다.

필자는 아직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중이라는 그 ‘玉笛’을 목도하지 못하였다. 여기에서의 관심은 문헌 및 한시 작품 속에서의 ‘玉笛’, 즉 문학적 소재로서의 ‘玉笛’일 뿐이다. 유물 그 자체로서의 ‘玉笛’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였다. 조선 시대에 수많은 문인들이 경주에 가서 직접 목도하였다는 그 ‘玉笛’의 모습은 일반적인 大笒類 악기에 비해 외형이 다소 통통하고 안지름의 길이가 짧을 것이다. 관대 길이가 한 자 아홉 치 정도이며

31) 『日省錄』, 정조 4년 경자(1780, 건륭 45), 1월 26일(을사)조 기사 참조.

指孔은 6개일 터이다. 그 생김새가 윗부분은 마르고 아랫부분은 생생한 형태의 천연적인 대나무 모습을 그대로 모사한 것이며, 불에 타서 심하게 훼손된 것을 쇠로 이용해서 복원하였다고 한다. 과연 박물관의 ‘玉笛’이 실제로 이런 모습인지 확인하는 일은 후일로 미룬다. 혹 다를 가능성도 있으리라 여겨지는데, 이는 다른 차원에서의 새로운 논의를 요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草汀 金上沃(1920 ~ 2004)의 聯詩調 「玉笛」³²⁾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지그시 눈을 감고 입술을 축이시며,
뚫린 구멍마다 임의 손이 움직일 때,
그 소리 銀河 흐르듯 서라벌에 퍼지다.

끝없이 맑은 소리 천 년을 머금은 채,
따스히 서린 입김 상기도 남았거니,
차라리 외로울망정 뜻을 달리하리요.

◆ 참고문헌

- 金富軾, 『三國史記』, 近澤書店, 1928.
 金富軾·辛鎬烈 譯解, 『三國史記』(I·II), 東西文化社, 1977.
 金時習, 『梅月堂集』, 韓國文集叢刊 13, 民族文化推進黨, 1988.
 金宗直, 『佔畢齋集』, 韓國文集叢刊 12, 民族文化推進黨, 1988.
 金上沃, 『時調詩集 草笛』, 水鄉書軒, 1947.
 金尙憲, 『清陰集』, 韓國文集叢刊 77, 民族文化推進黨, 1991.
 金正喜, 『阮堂全集』, 韓國文集叢刊 301, 民族文化推進黨, 2003.
 李裕元, 『林下筆記』,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院, 1961.
 李荇 等, 『(국역)新增東國輿地勝覽』, 高宗國역총서;40~46, 민족문화추진회, 1969.
 徐居正 編, 『(국역)東文選』, 高宗國역총서 27~35, 민족문화추진회, 1968.
 徐居正 編, 『東文選』, 朝鮮古書刊行會, 1914.
 成汝信, 『浮查集』, 韓國文集叢刊 56, 民族文化推進黨, 1990.
 俞好仁, 『潘谿集』, 韓國文集叢刊 15, 民族文化推進黨, 1988.
 李瀾, 『星湖全集』, 韓國文集叢刊 198~200, 民族文化推進黨, 1997.
 一然·崔南善 編, 『三國遺事』, 民衆書館, 1958.
 丁若鏞, 『與猶堂全書』, 韓國文集叢刊 281~286, 民族文化推進黨, 2002.
 韓致瀛, 『(국역)海東繹史』, 高宗國역총서 313~321, 민족문화추진회, 1996~.
 洪聖民, 『拙翁集』, 韓國文集叢刊 46, 民族文化推進黨, 1989.
 『(국역)燕山君日記』, 민족문화추진회, 1972~1976.
 『(국역)英祖實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9~1994.
 『(국역)日省錄(正祖)』, 민족문화추진회, 1998~.
- 未詳, 『朝鮮志』, (文淵閣)四庫全書 594, 商務印書館, 1983.
 陳暘, 『樂書』, (文淵閣)四庫全書 211, 商務印書館, 1983.
 陳耀文 撰, 『天中記』, (文淵閣)四庫全書 965~967, 商務印書館, 1983.

32) 金上沃, 『時調詩集 草笛』, 水鄉書軒, 1947.

胡仔, 『漁隱叢話』, (文淵閣)四庫全書 1480, 商務印書館, 1983.

투고일 2008. 9. 12 심사시작일 2008. 11. 3 심사완료일 2008. 11. 25

Abstract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Jade Flute of Silla Dynasty

Nam, Jae-Cheol

This essay is to demonstrate historically some facts relating to 'the jade flute(玉笛)' of 'Silla(新羅)' in many old Korean poems.

'Manpasikjeok(萬波息笛)' and 'jade flute' which were made in Silla Dynasty are sometimes regarded as the same thing, but we can check two thing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looking through old documents.

The original 'jade flute' were made in jade imitating the shape of natural bamboo.

It was 57.58cm long. It must have been brought from 'Gaya(伽倻)'. It can be conjectured that it had six finger hole and a mouth hole.

It was damaged by fire in 1552. The theory that Japanese damaged it i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can be misunderstood. It was restored with iron almost perfectly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There has been mysterious legend that only a man can play the jade flute and only after the old player die, the new jade flute player can show up. The legend may be made by the structure of the jade flute which the only proficient mater from his childhood can play. There is a strange story that the jade flute doesn't make any sound when it passes 'Jo-Ryeong(鳥嶺)'. How -ever it was manipulated by some special reason.

Keywo

rd

jade, jade flute(玉笛), jade flute of the Silla(新羅玉笛), Manpasik- jeok(萬波息笛), Jo-Ryeong(鳥嶺).